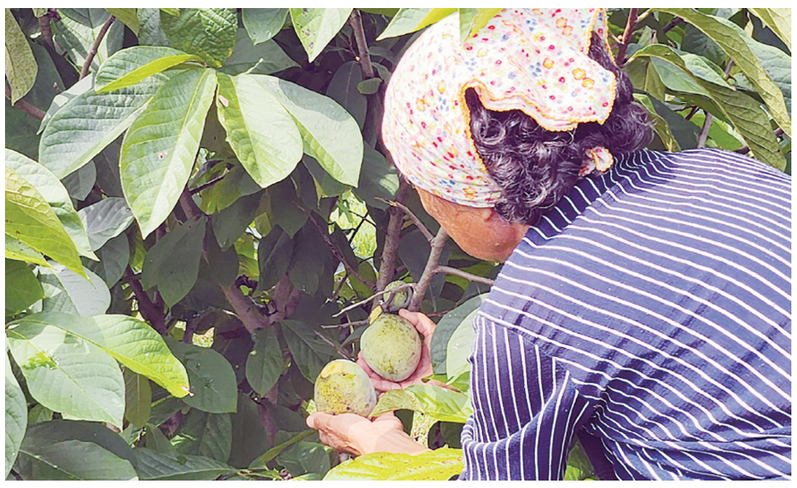
진도군, 친환경 특산품 포포 열매 본격 출하

천연 항암물질 '아세토제닌' 함유, 슈퍼 푸드로 각광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슈퍼 푸드로 평가받고 있는 과일 '포포나무' 열매가 진도에서 본격 출하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pawpaw)나무는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활용도가 다양해 한국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둘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새로운 대체 작목이다.

포포 열매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를 섞어 놓은 듯한 맛으로 과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잼이나 포도주(와인), 아이스크림, 과립즙(퓌레), 스무디, 제빵의 재료로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의 허모 씨는 10년 전에 가격 폭락을 반복하던 대파의 대체 작목으로, 생소하기만 했던 아열대 과일인 포포나무를 심어 재배를 시작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으나 냉해에 강하고 병충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허 씨는 약 1,200평의 밭에 포포나무 400주를 심고, 본격적으로 재배에 돌입했으며, 그렇게 재배에 심혈을 기울인 지 7년 만인 올해부터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기온상승과 작목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전후해 진도의 몇몇 농가에서 대체 작목으로 포포나무 농사를 시작했으며, 무농약 다년생 작목으로 일손을 줄일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슈퍼 푸드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확된 포포 열매는 진도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매장' 또는 의신면 청룡마을 농장의 생산자(010-8742-1664)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대체 작목 재배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러 논문에 따르면 포포나무 과육과 잎에는 '아세토제닌'이라는 천연 항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됐다고 하며,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고 프로시아니딘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광군 영광청년육아나눔터 개관식 개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16일(화) '영광청년육아나눔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관식에는 군수,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청년부군수, 청년회의소 회장 등 50여 명의 내빈과 주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축사, 테이프 자르기에 이어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운영시설과 공간 구성 등을 확인했다.

영광청년육아나눔터는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3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연 면적 3,23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청년과 아이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1, 2층은 청년센터, 청년점포, 커뮤니티홀, 스튜디오실, 네트워크실 등 청년커뮤니티 공간으로, 3 ~ 5층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영유아 놀이터 등 육아통합지원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개관식에는 어린이집 원아 40여 명이 놀이터 체험에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인사 말씀에서 "청년이 마음 편히 머물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영광군은 햇빛 바람 기본소득 도시로 도약하며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고,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영광청년육아나눔터 개관을 계기로 지역 청년과 육아공동체 활성화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나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조생종 나주배, 콜드체인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조생종 나주배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7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확 직후부터 선적과 현지 유통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공모에 앞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신화 품종 재배 농가 35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숙기 판정 컨설팅을 진행하며 고품질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지역이 참여했으며 나주를 포함한 5곳이 최종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선정된 단지를 정부 정책사업과 언론 홍보에 활용하며 K-food 신선농산물 우수 사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조생종 배의 수출을 위해 저온저장고와 선도 유지 장비를 갖춘 콜드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가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균일한 품질 확보와 해외 판로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콜드체인 시스템이란 과일의 신선 식품이나 냉장 식품을 저온 상태로 유지해 유통하는 체계를 뜻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나주배의 해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재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조생종 배 전용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춰 해외 시장에서 프리미엄 나주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 추석맞이 '보성몰' 특별 할인 행사 추진

전남 보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3일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보성몰'에서 최대 20% 할인과 다양한 적립 이벤트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성몰 이용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최대 20% 할인(일부 품목 제외)이 적용되며, 최소 2천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도 마련됐다. 또한 보성몰 적립금 이벤트로 신규회원 가입 시 3,000포인트 지급, 출석 체크 100포인트, 상품 구매 시 3% 적립, 구매 후기 작성 시 최대 300포인트를 제공해 할인 혜택과 함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보성몰'에는 180여 개 업체, 1,000여 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청정 자연에서 키운 보성 차(茶), 키위, 꼬막, 녹돈, 올벼쌀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성몰 할인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소비 기회가 되고, 농가에는 든든한 판매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높여 군민과 농가가 함께 웃는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곡성군드림스타트, 온가족 구충제 지원 사업 실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곡성군드림스타트 대상 아이들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온가족 구충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구충제 복용은 연 1회가 권장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 농촌 거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구충제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용 시에는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위생 관리, 생활환경 청결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없더라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은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다.

위생 환경이 좋아진 현대 사회에서도 기생충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파 위험률이 높아 정기적인 복용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충제 복용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도 곡성군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고흥군, 80세 이상 어르신 청춘바우처 시행

장수 비결은 건강·활력… 고흥형 복지정책으로 이어간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1월 1일부터 '어르신 품위유지 청춘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해 위생과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을 돕는 복지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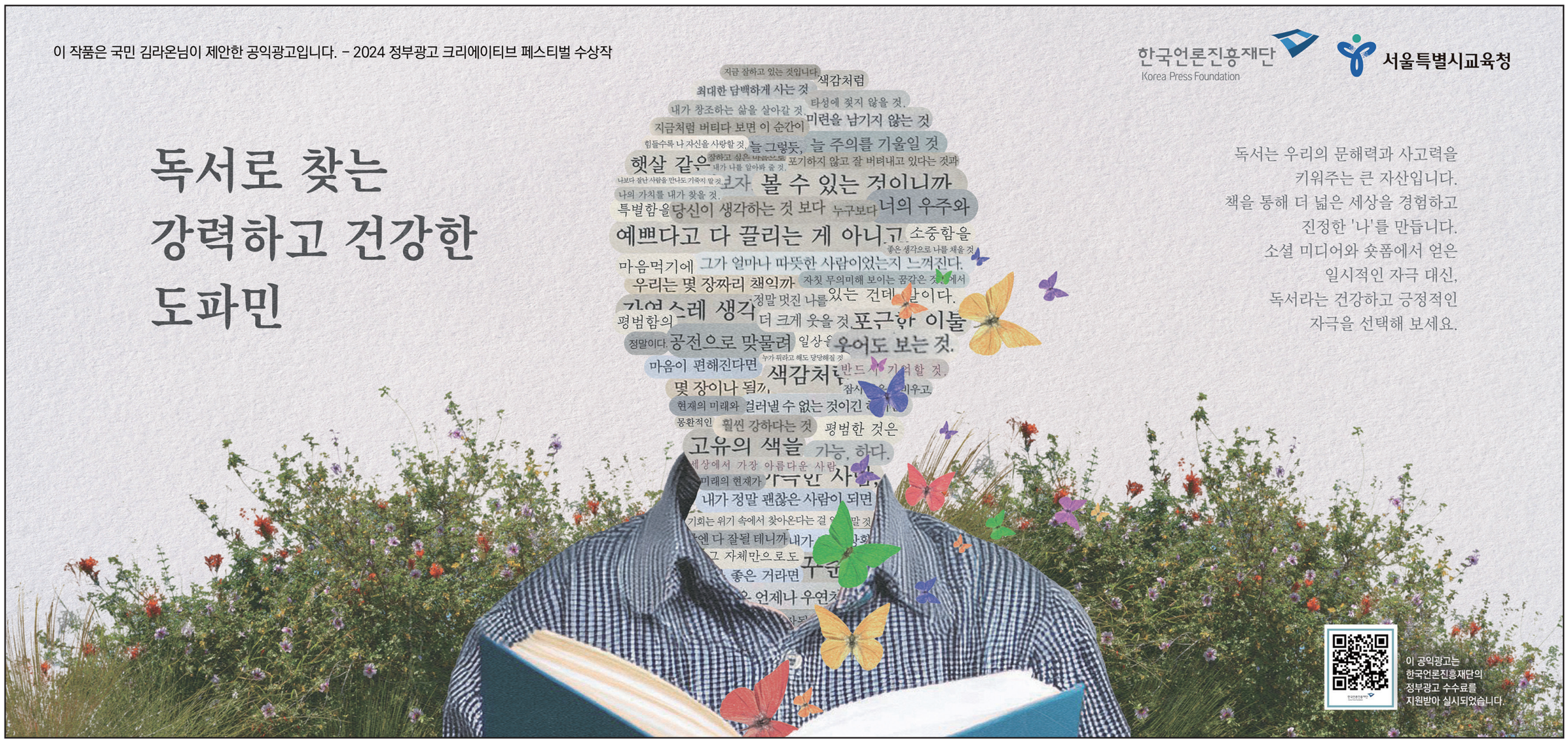
군은 올해 군비 2억 9천3백만 원을 투입해 주민등록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에게 1인당 연간 6만 원(반기별 3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는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은 물론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10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10월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고흥군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46.6%로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이는 고흥군이 장수 고장임을 보여주며, 군은 이러한 장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어르신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청춘바우처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수 고흥의 전통을 이어가는 든든한 복지정책"이라며"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장수의 밑거름이 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박도일 기자